

기쁨의 회복

빌립보서 4:4-7

요즘 세상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낯설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뉴스를 틀면 전쟁과 갈등, 재난, 폭력,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바쁘고, 피곤하고, 때로는 눌러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 염려도 이제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한 번만 말하지 않고, 곧바로 다시 반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왜 바울은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드러내는 마치 표지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회 신학자 피에르 테이야르 드 샤르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확실한 표지이다. ... 우울함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아니다. 슬픈 성도란 없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내 삶과 존재의 중심이라면, 기쁨은 반드시 따라온다. 만약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놓친 것이고, 결국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그 결과를 겪게 될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14:17 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기쁨)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쁨이 당연한 것이고, 또 당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걱정, 전쟁, 재난, 질병, 갈등을 보거나 직접 겪으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우울증에 안 걸리는게 아니더라구요.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위해 택함을 받았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우울한 그리스도인은 모순이다. 긴 얼굴, 검은 옷과 연결된 기독교만큼 기독교를 해친 것은 없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가장 큰 필요는 설명할 수 없는, 전염되는 기쁨이다. 파격적인 기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바랍니다. 우리 마음 속에 주님 주시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놀라운 기쁨, 파격적인 기쁨, 전염되는 기쁨이 오늘 날 기쁨이 갈급한 이 세상에 흘러보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기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히브리어로 *שמח*, 헬라어 *카리*인데요.

먼저, 히브리어 “심하”는 **기쁨, 즐거움, 환희, 축제의 즐거움**을 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 은혜를 깨달을 때 흘러나오는 영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하’ 기쁨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에서 오는 깊은 영적 즐거움입니다.

헬라어 카라도 비슷한 맥락에서 기쁨을 설명합니다.

“카라”의 뜻은 **기쁨, 즐거움, 깊은 만족**이지만, 특별히 **구원의 은혜에서 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카라”는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Charis)*와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카라’ 기쁨은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기쁨은 환경이나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깊고 지속적인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내 영혼에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 그것의 열매로서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22-23 에서 성령의 열매로 기쁨을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느헤미야 8:10 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할 때,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생각해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과 조건, 또 우리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그렇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께** 뿌리를 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내 감정을 초월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박해와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찌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기쁨을 경험한 것이고, 바로 그 기쁨을 그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주님 안에서 두 가지 기쁨을 경험 했습니다.

첫번째는 **다른 성도의 성장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 2:2 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2:19-20 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저 역시 목회자로서 가장 큰 기쁨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며, 무엇보다 예수님을 위해 담대히 일어서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기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이 글로벌 감리교회 버지니아 연회에서 주최한 리더십 트레이닝에 다녀왔습니다. 주말인지라 주일 준비에 대한 부담도 있고, 거리도 있는지라 개인적으로 쉬운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모두 아마 어려운 여정이셨을텐데 함께해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제 몸은 피곤했는지 모르지만 제 마음은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둘째날 아침에는 아침 예배를 마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던지요? 또, 수업을 열심히 듣고 계신 성도님들을 보니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수업이 유익했다고, 오길 잘했다고, 빌의 경우에는, 일년에 두번하자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은 날아갈 듯이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장이 저의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역시, 서로가 성장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바울이 경험한 기쁨은 고난 속에서 얻는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 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들의 몸은 상처투성이였고, 손과 발은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행 16:25)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감옥, 어두운 밤, 몸은 피투성이. 상처는 고통스럽고 마음은 괴로운게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옥에서 들려오는 것은 신음소리, 울부짖음, 절규가 아니라 **찬송의 소리**였습니다.

그들의 찬송은 기분 좋아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었지요. 그들이 부른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 이 고난 속에서도 당신이 여전히 나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줄 믿습니다! **God knows what He is doing!** 하나님은 분명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분명 바울의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받는 고난이 깊을수록,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 깊은 것입니다.

왜냐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10)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 5:11-12).

지난 주에는 광야사역이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또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DC 까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갈 때, 몸은 피곤했겠지만 마음은 어떠셨나요? 마음이 홀가분하고 기쁘지 않던가요? 저만 그랬나요? ^^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순종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만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존 하우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함으로써만 누릴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수 있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 4:4)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쁘길 원하시는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쁨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기쁨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때 찾아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쥐어짜듯이 기쁨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할 때,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즘들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진 분 계신가요?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우울이 가득하신가요?

그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빌 4:7)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기쁨이 다시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임을
말입니다.

우리 안에 염려와 불안이 가득할 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늘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늘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번 한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 질문:

- 나는 언제부터 내 마음 속의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염려나 습관은 무엇인가?
- 이번 주, 나는 어떻게 성령의 기쁨을 다시 선택하고 나눌 수 있을까?